

9. 조선초기의 회화

1. 조선초기의 절파화풍, 남송원채화풍, 미법산수화풍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조선초기 화조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3. 조선초기 계회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조선초기의 절파화풍: 姜希顔(1417-1464)

호 인재(仁齋)

1441(세종23) 式年文科 등제. 집현전 직제학, 호조참의 역임.

1462년 사은부사로 연경에 가서 예명을 떨침.

-풍류와 문장으로 이름난 명문가 출신.

세종의 비가 강희안의 이모. 문종, 세조, 안평대군과는 외종간이 됨.

-문장도 뛰어나서 용비어천가에 주석 붙임

그의 글자로 주조한 乙亥字로 된 불경이 전함

-부친과 나란히 당대의 시서화 삼절로 일컬어짐.

<高士觀水圖>

-소경산수인물화

-절벽을 배경으로 인물을 부각시킴

(cf) 明代 浙派화가 장로의 <어부도>

-당시 새로운 화풍인 절파화풍 수용하여 선구를 이룸

인물의 도상은 『芥子園畫傳』 인물옥우보 중의 ‘高雲共片心’과 동일

-활달한 필치, 문인적 격조와 취향이 살아있음

조선초기의 남송원채화풍: 李上佐(15세기말~16세기초)

-私奴 출신이었으나 그림 재주 덕에 화원이 됨.

-산수, 인물에 뛰어남.

아들 이승효(李崇孝), 이흥효(李興孝) 손자 이정(李楨)이라 전함.

그러나 허균이 쓴 「이정애사(李楨哀辭)」에 “李小佛-李陪連-李崇孝-李楨”이라 하였고, 『패관잡기(裨官雜記)』에는 이정의 조부가 이상좌라 언급. 이상좌가 이배련 인지는 확인이 안 됨.

<송하보월도>

조선초기의 미법산수화풍: 서문보, 이장손, 최숙창

-일본 大和文華館 소장

-8폭 병풍 가운데 6폭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활약했던 화원

-원대(元代) 고극공(高克恭) 계열의 미법산수

안견과 화풍: 梁彭孫, <산수도>

-양팽손: 호는 학포. 중종대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시문에 능한 학자이자 정치가.

23세 조광조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했던 인물

-우측상부에 은둔생활 노래한 두 편의 시- 50자의 오언절구, 율시.

-‘學圃寫’의 관서.

-양팽손이 己卯土禍(훈구재상들이 조광조 등 신진사대부 몰아낸)에 연루되어 그의 고향인 능성현 쌍봉리에 학포당 짓고 칩거했던 1521-1545년(18년간 은거) 사이에 제작

2. 조선초기의 영모화(翎毛畵): 李巖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증손

-영모, 화조에 뛰어나

-강아지 그림에서 독특한 경지 개척

<모자도>

<화조구자도>

조선초기의 초충도: 신사임당

자생하는 화훼, 초충 주제

산수화에서 안건 배워

『율곡집』에 7세부터 안건의 그림을 倣하기 시작하여 산수, 포도, 화훼, 초충 등을 즐겨 그렸다고 했음.

*摹: 원본의 위에 비치는 얇은 종이를 대고 윤곽선을 직접 그대로 베끼는 것.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이 원본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다.

臨: 그대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앞에 놓고 보고 그리는 것. 이렇게 그린 것을 임본이라고 한다.

倣: 옛 대가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畵意 또는 필의, 즉 정신이나 필치를 본받아 그린다는 의미. 문인화의 중요한 기본 정신이다.

<초충도>

간결한 구도, 여성다운 소재의 선정

沒骨法 위주로 섬세한 묘사

<초충도 繡屏> 16세기 보물595호 동아대

신사임당이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수놓았다고 전해지는 8폭의 자수 병풍

<월하고주도>

구도, 공간처리는 안건파를 훨씬 확산시킨 듯

필목법, 준법은 절파화풍

→ 절충 양식

3. 계획도

선비들의 문인계획이 활발히 개최되었고 이를 그림으로 남김

선비들의 계획 기념하고 보존·전승하기 위해 화폭에 그 모임의 모습을 그리고 계원들의 성명과 略傳 사항 기록. 동양회화사상 독특한 형식.

16세기와 그 이후 것만 알려져 있음

<독서당 계획도>, 1531

*세종 8년(1426)부터 주로 집현전의 年少能文之士 뽑아 사가독서 시킨 것이 독서당의 시원. 후에 상설 국가기구로 독서 연구 기구로 기능. 처음에는 장의사(藏義寺)에서 독서하게 했으나 성종조에 한강 북쪽 기슭의 용산 폐사를 당으로 고쳐 홍문관의 독서지소로 삼았음. 중종 10년(1515) 현재의 성동구 옥수동 강가 두모포 남쪽 산기슭에 새로 독서당 지어 옮김.

-독서당에서 사가독서(賜假讀書)하였던 장옥(張玉)을 비롯한 12명의 계획을 그린 그림.

좌쪽에 기록된 계원들의 관직을 볼 때 1531년 제작.

송인수- 홍문관 부응교, 중종 26년(1531)

허항- 사간원 정언

임백령- 군수, 중종 26년. 중종27년에는 시강원 문학

∴ 1531년에 그려진 것으로.

*야외에서 승경 감상하며 계획 가진 것은 당시를 왕도정치(王道政治)가 이루어진 시절로 인식한 시운론적(時運論的) 가치관에 근거.

독특한 자연관 형성

☆조선초기 실경을 감상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는 왕도정치가 실현된 시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 특히 한강변을 그린 것은 그 시대의 평화로움과 영광 길이 보존하고 후대에 귀감으로 삼으려는 재도론적(載道論的) 동기에 의한 것.

<미원계획도>, 국립중앙박물관

*사간원(司諫院)의 계획 그림.

-성세창(成世昌, 1481-1548)의 찬시

-‘嘉靖庚子仲春’의 연기가 있어 1540년 작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안휘준, 『한국미술사연구』, 사회평론, 2012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